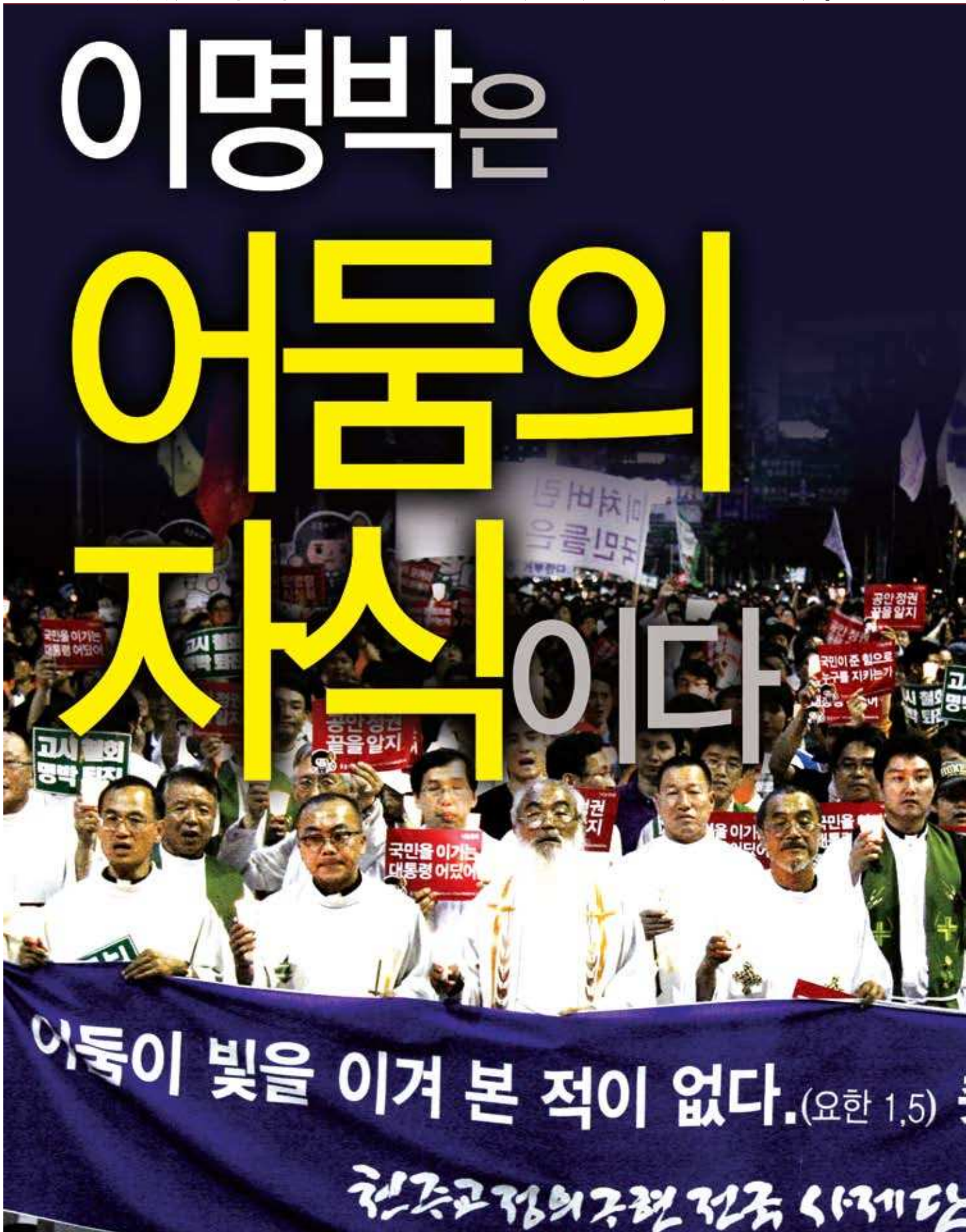




촛불에 밀려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빠져린 반성”을 말하던 이명박이 며칠도 안 돼 폭력적 본색을 드러내는 데 그의 정치적 친구들한테서 받는 압력이 한몫했다.

경총 회장 이수영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쏟아냈고, <조선일보>는 “경제계에서 들끓는 분노의 수위가 이만저만한 수준이 아니[며] ... 청와대와 집권당이 성토 대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는 과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미국산 쇠고기 수입]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애완견’이던 토니 블레어를 대체할 강력한 경쟁자”(<워싱턴포스트>) 이명박에게 이것은 큰 압력이었다.

끝장

“청와대만 지키는 정권”(<조선일보> 6월 27일치)이라는 조중동의 원망도 빠져렸던 듯하

다. 문화부장관 유인촌은 그날 바로 조선일보사를 사과 방문했고, 그날 밤부터 ‘명박산성’의 방어선은 조중동 건물로 확대됐다.

재벌·강부자·조중동은 이명박이 여기서 더 밀리면 정권을 유지하거나 대운하,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교육 시장화, 한미FTA 등을 추진할 수 없을 거라고 봤다. 나아가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사기가 올라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어떤 격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

움에 휩싸였다.

6월 30일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도 “또다시 유화책으로 돌아설 경우 상황은 건잡을 수 없이 돌아간다”며 “이쪽(정권)이나 저쪽(시위대) 중 하나는 끝장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촛불 항쟁의 성패에 걸린 이런 어마어마한 판돈 때문에 지금 이명박은 미친 듯이 반동적 폭력에 매달리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촛불을 지켜 드리고자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인터뷰

3면



747 파산과
경제 위기, 고통분담

6~7면

크리스 하면 — 고유가의
고통을 떠넘기는 지배자들

7면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김광일 행진팀장 인터뷰

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짐바브웨와 무가베 독재

4면

냉각탑 폭파와
북미관계 개선의 전망

5면

촛불 현장에서 온 편지들

9~11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경제 위기와 저항

크리스 뎀버리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무능한 사람이 무능을 직시하고 물러나는 것도 용기이다. … 하야하고 용감한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 이명박보다 더 흉악한 자를 원하는
극우익 조갑제

“촛불 폭동 주동세력에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조갑제닷컴 기자 김성욱

“일본에서는 찹쌀떡을 먹다가 목이 메한 해 25명이 죽는다 … 그렇다고 떡을 먹지 말라 할 수 없지 않냐.”

— 농림부장관 정운천

“747 공약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몰라도 실현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부 회의에서 밝힌 적이 있다.”

— 정부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버스 기본요금] 한 번 탈 때 70원 하나?”

— 한나라당 정몽준

“유모차의 아기를 방해심야 물대포를 막겠다는 일부 시위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모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

— 한나라당 사무총장 권영세

“애를 빌려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인식 수준이 너무 한심하다.”

— 촛불시위 참가자 문홍주 씨

“이 지루하고 힘들고 외국인들 보기에 창피스러운 국가적 혼란을 종결시킬 때가 됐다.”

— 민주당 공동대표 박상천의
끝없는 등원 욕구

“손님들이 조선·동이를 안 사면 그만인데, 어느 날부터 모여 서서 욕을 한다. 신문도 안 나가는 데다 욕까지 먹으니 스트레스가 심하다.”

— 강남역 신문판매대 ㄱ씨



최근 경찰은 박원석 상황실장, 김광일 행진팀장 등 광주병국민대책회의 핵심 활동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자진출두를 거부하고 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김광일 행진팀장(‘다함께’ 운영위원)을 인터뷰했다. 한 달 이상 거리 행진을 이끌며 구호를 외친 탓에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쉬어 있었지만,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는 매우 분명했다.

수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난 6월 29일 제 아버지 환갑 축하 잔치가 있었지만, 수배자인 저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 정부는 부자의 정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 아파 하시면서도 절대로 잡히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결코 자진출두하지 않을 겁니다.

5월 2일 이후 1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연행됐고, 10명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숙식하던 대책회의 동료들도 이미 세 명이나 구속됐고, 7명은 저와 같은 수배 상태입니다.

대책회의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탄압은 바로 이 운동이 조직된 운동으로 성장하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김광일 행진팀장 인터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80년대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은 김영삼 정부 때도 없었던 참여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어떤 정치적 통로도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제 겨우 취임 1백20일을 넘긴 정부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폭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최루탄 남용은 오히려 정권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더 큰 분노를 만들었을 뿐입니다.公安 정국 속에서도 사제단 신부님들이 미사를 이끌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폭력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촛불시위의 성장을 위한 제안이 있다면요?

우선, 이명박 정부의 분열 책동에 맞서야 합니다. 정부는 촛불의 ‘배후’ 운운하면서,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이 한국진보연대를 “반미단체”라며 마녀사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파업이 더 강력하게

벌어져야 합니다. 노동자 파업은 정부의 정책을 좌절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 국면에서 7월 5일 시위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7월 5일과 그 이후에도 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대한 시위 물결은 저들의 탄압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인터넷 홍보, 문자 보내기와 전화 걸기, 벽보 부착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촛불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한 관계자가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도 아닌데, 청와대로 가자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치 않으면 정부를 끌어내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시를 강행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와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악몽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거리로, 또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인터뷰 · 정리 최미진

이명박의 반동이 불러낸 진보신당 정치 테러

안형우

지난 7월1일 밤 10시 반쯤, 특수임무수행자회(특임자회) 사무총장 오복섭과 고향 네 명이 진보신당 당사를 습격했다.

이 깡패들은 진보신당의 현판을 부수고 당직자의 뺨을 때리는 것은 물론, 배를 발로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집단 폭행을 저질렀다.

이날 진보신당을 습격한 특임자회는 지난 6월 5~6일에도 갑자기 위령제를 지낸다는 핑

계로 시청 광장 촛불집회를 방해했다. 특임자회 사무총장 오복섭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의 안보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건물에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대형 팸플릿이 걸려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진지하게 수사하지는 의문이다. 이미 경찰은 가스통과 각목 등을 소지하고 KBS 앞 ‘촛불’을 습격한 우익들도 처벌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찰은 녹장 출동했고, 와서도 어영부영했다. 이런 ‘응원’에 힘입어 깡패들은 연행되면서도 진

중권 교수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날려 버렸다.

〈조선일보〉의 “폭력 난동패들”, “전문 시위꾼들” 등의 선동, 뒤이은 이명박의公安정국조성과 무자비한 탄압이 이들을 움직인 동력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심지어 이들은 진보신당 당사에서 폭력 난동을 벌이며 누군가에게 전화로 보고까지 했다.

역사에서 우익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깡패를 동원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이승만이 후원한 서북청년단이 좌익을 테러한 것이나 야당 전당대회를 습격했던 전두환의 ‘용팔이 사건’은 유명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의 시도가 더 큰 야만을 부활시키기 전에 ‘촛불’의 힘으로 썩을 잘라야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국민들은 촛불이 꺼지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이 이제는 소수 전문시위꾼들의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 김효재는 “시청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체의 0.00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명박 지지율이 올라’갔고, 과반수가 ‘촛불집회 중단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친이명박 짜라시 〈중앙일보〉나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이다.

반면 얼마 전 MBC 조사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의 미국 정부 보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9퍼센트에 그

쳤다. 〈한겨레〉가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추가협상 이후에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가 65.5퍼센트,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74.2퍼센트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현직 언론인과 언론학자 3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퍼센트가 ‘촛불집회에 공감’했다.

심지어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추가협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9퍼센트였고, 이명박 지지율은 제자리였다. 촛불의 불씨가 사그라지고 있다는 것은 순전히 저들의 착각이거나 희망 사항이었던 것이다.

선출된 정권을 그만두라는 것은 심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불과 6개월 전에 정상적인 선거로 선택한 정권”인데 “‘청와대로 가자’ 이런 것은 심하다”고 했다. 전 대통령 김영삼도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데, ‘그만두라’는 게 말이 되냐”며 “완전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6개월 전에 BBK 사기극을 ‘떡값 검찰’이 덮여 주면서 총 유권자 중 고작 30퍼센트의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당시는 노무현 5년 배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하도 커서 ‘한나라당에서 개를 내보내도 당선할 것’ 같았던 분위기였다.

당시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들은 온갖 부패와 추문에도 불구하고 ‘747과 경제 살리기’ 공약을 보고 찍어 준 것이다. 그러나 이

제 이명박의 ‘747’은 사기극으로 드러났고 이명박은 놀라운 속도로 서민경제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를 추진하고 있다.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며 “버스 기본요금이 70원인가?”(한나라당 정몽준) 하는 반(反)서민적 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정부는 한미FTA, 재벌 감세, 부동산 투기 조장책을 ‘민생 정책’이라고 할 만큼 뻔뻔스럽다. 한나라당이 단독 개원까지 불사하며 처리하려는 ‘민생대책’은 이런 것들이다.

따라서 불과 4개월 만에 자신을 뽑아 준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군홧발로 짓밟으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며 행진하는 것은 정당하다.

» 3면으로 이어짐

탄압 받는 촛불 수호에 나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폭력에 촛불의 뜻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6월 30일 저녁 7시 3백여 명의 사제단의 입장으로 시작된 촛불기도회에 참가한 시민 수만 명은 뜨거운 눈물과 환호로 사제단을 맞이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전 문시위꾼들의 난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정부와 보수 언론이 주장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한 순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전중훈 신부 외 3백여 명의 전국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이뤄진 이날 기도회는 1천여 명으로 시작해 불과 1시간 만에 3만 명 규모로 불어났다.

사제단과 수녀님들은 시청 원천 봉쇄와 토끼몰이 진압, 압수 수색까지 서슴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5공식 탄압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고 위로받은 ‘촛불시위대’의 목소리는 도심 일대에 다시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함성으로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연행자와 구속자를 석방하라’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다. 한 참가자는 “다시 시작입니다. 민주노총 파업이 있고 개신교와 불교계의 기도회도 이어질 것입니다. 신부님들의 말대로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며 촛불을 치켜들었다.

촛불 운동의 전환점이 된 이날, 시청에서 무기한 단식기도회를 시작한 **전중훈** 신부와 **김인국** 신부를 만나 인터뷰했다.

취재·인터뷰 장호중

시국 기도회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김인국 신부 그동안 사제들은 뒤에서 국민들의 뜻을 지켜드리는 것을 해 왔죠. 그런데 국민들의 뜻은 짓밟혔고 정부는 너무 멀리 나가 버렸습니다.

최근 경찰의 원천 봉쇄나 강경 탄압 등 사실 정권 말기에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거든요.

촛불시위에 대한 왜곡도 심합니다.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지키려 나선 것이 애초 취지인데 그것이 마치 보수 대 진보, 친미 대 반미의 대결로 왜곡돼 있거든요. 이런 뜻도 가지런히 하고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도록 하려고 나왔습니다.

보수 언론과 정부는 촛불시위를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중훈 신부 보수 언론들이 [폭력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도된 보도행태죠. 문제는 원인이 있잖아요. 폭력이 있으면 왜 있게 됐냐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안 듣고 국민을 섬기질 않으니까요. [정부의] 그런 측면이 폭력을 유발시킨 원인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제 촛불을 끄고 들어갈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요.

김인국 신부 그러려면 정부가 시민들이 촛불을 끌 명분을 주셔야 되요.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가서 촛불 구경하고 아침이슬 노래 한 번 들은 것밖에 없어요. 정작 국민들이 피곤하죠. 그분들이 촛불을 끌 수 있도록 명분을 주셔야죠.

촛불 시위 참가자들과 이들을 지지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인국 신부 지난 60여 일에 이르는 촛불 여정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은근과 끈기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오는 여정이 고역이 아니라 즐거웠잖아요. 그런 발랄한 힘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겠느냐. 그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촛불의 빛으로 폭력 정권과 맞서자

» 2면에서 이어짐

이 투쟁에 걸린 커다란 판돈 때문에 7월 5일 촛불대행진 이후에도 이명박은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권력의 정당성을 잃은 이명박은 7월 5일 이후로도 검찰과 경찰의 폭력에만 의존하려 할 것이다. 검찰총장 임채진은 “불법 폭력 촛불시위에 중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오마이뉴스〉의 지적처럼 이런 폭력적 반격이 “실패하면 이명박 정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물론 폭력 탄압 일변도로 돌아섰어도 촛

불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새 대표로 유력한 박희태는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고시를 게재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6월 3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집전한 시국미사는 군홧발에 짓밟히던 촛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구원투수가 됐다.

그러자 문화부장관 유인춘은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식으로 [국민대체회의]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반대해

극우의 조갑제는 “반격 작전에 정부 대변인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발을 굴렀다. 물론 유인춘의 대화 제의는 또 다른 꼼수와 사기극을 예고하는 것이다.

7월 5일 이후에도 촛불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 세력도 촛불 끄기 공세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때, ‘제도권 내에서 해결돼야 하고 헌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며 주춤거리다가 이명박에게 반격의 기회를 줬던 6월 10일 이후의 오류가 반복돼선 안 된다.

물론 박명림 교수가 말하듯 이명박은 이미 “정치·정책적 탄핵” 상태에 놓여”있고 이명박의 “대선 핵심공약은 ‘모두’ 철회·중단·악화·역전되었다.” 그럼에도 촛불은 아직 구체적 요구를 성취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을 일시 중단시키고 재벌·강부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 준 진정한 힘인 아래로부터 투쟁을 계속 중심에 뒀야 한다. 또한, 단지 쇄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미친 정책들의 인격적 화신인 이명박 정부 자체를 반대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정적으로,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반인 재벌들의 이윤에 타격을 준다면 촛불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주의적 약점들 때문에 이런 기대는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 활동가들은 촛불의 역동성을 현장 노동자들 속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짐바브웨 사태

서방의 이중잣대를 보여 주다

한때 짐바브웨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추앙 받았던 로버트 무가베는 이제 28년째 철권통치를 이어가는 독재자로 비난받고 있다. 그는 최근 대선에서 야당 활동가 86명을 살해하는 등 온갖 폭력과 부정을 저지르며 단독 선거를 강행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들은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고 나섰다.

영국 식민지 시절의 짐바브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캘리니코스가 짐바브웨 상황의 진실을 설명한다.

1965년 11월 이언 스미스가 이끌던 인종차별주의 정부가 당시 남부 로디지아의 정착민 식민지였던 짐바브웨의 독립을 불법적으로 선언했을 때, 나는 열다섯 살이었다. 우리 가족은 수도인 솔즈베리(지금의 하라레)에 살고 있었다.

나는 스미스의 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영국의 낙하산부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던 게 기억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 패디 애쉬다운(전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같은 작자가 로버트 무가베 정권에 맞선 영국의 군사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듣노라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한 마디로 흑인 정권에게는 무력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백인 정권에게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무가베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과 남반구에서 일정한 지지를 유지하려고 영악하게 이용해 온 게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이중잣대다. 그는 토니 블레어와 조지 부시보다 나은 적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짐바브웨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무가베의 주장은 썩어빠진 거짓말이다. 그는 여당인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연맹-민주전선’(ZANU-PF)에 있는 극소수 고위 인사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국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무가베가 대

통령에서 물러나면 그들이 쌓아 둔 더러운 부는 물론 목숨마저 잃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 집단은 군대와 보안기구의 고위층에 집중돼 있다. 그들은 지난 3월 말 무가베와 ZANU-PF가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한 뒤 —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 정치적 지배권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기진맥진

무가베와 그 측근들의 계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듯하다. 첫째, 그들은 짐바브웨 국민들이 경제난, 정치적 억압, 대규모 탄압으로 기진맥진한 상황이고, 따라서 성공적인 항쟁을 일으킬 수 없을 거라고 믿는다.

둘째, 무가베는 아프리카 다른 지역의

동맹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 타보 음베키가 외부의 개입을 막아 줄 거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무가베를 불합리한 미치광이로 묘사하는 영국 언론의 보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무가베의 생각은 이언 스미스의 생각과 흡사하다. 1971년에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며 흐뭇해했다. “우리에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아프리카인들이 있다.” 스미스는 남아공 인종차별주의 정부의 지지를 받는 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예전의 스미스와 꼭 마찬가지로, 무가베는 그의 계산이 매우 취약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규모 실업과 이주의 파괴적 결합이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했을 수는 있다. 남

짐바브웨 야당인 MDC의 지도자 모간 창기라이를 환영하는 사람들

아공의 논평가 R W 존슨이 지난주 토요일[6월 28일] ‘라디오4’의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840년대 대기근 동안의 아일랜드 상황을 언급하며 한 비교는 꽤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공포정치로도 무가베가 2000년대 초 야당인 ‘민주변혁을위한운동’(MDC)에 맞서 무가베를 지지했던 농촌 지역 대다수에서 지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지난주 MDC 사무총장 텐다이 비티가 정부 청문회에서 폭로했듯이, ZANU-PF의 고위 인사들이 3월 총선 이후 그토록 협상하고 싶어 했던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게다가, 음베키의 지지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는 2007년 12월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지도부 선거에서 제이콥 주마에게 참패한 이래 레임덕에 시달려 왔다. 주마의 핵심 기반 가운데 하나는 남아공노동조합회의(COSATU)다.

COSATU는 무가베의 민주주의 공격에 반대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벌여 왔다. 4월에 남아공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무가베가 추진하는 중국산 무기의 수입을 봉쇄하는 행동을 조직했고, 음베키가 이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일요일[6월 29일]자 〈옵서버〉를 보면 COSATU의 지도자인 바비는 지난주 치러진 짐바브웨 선거를 추잡한 짓이라고 비난하며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물론 전 세계의 진보적 시민들에게 무가베와 그 정부의 완전한 고립을 위해 활동할 것을 호소했다.”

짐바브웨 민중의 완강한 저항과 이러한 연대 행동의 결합은 조만간 무가베 정권을 박살낼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낡은 제국주의자들 덕분에 아니라 말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훗카이도
G8 정상회의

지구를 망치는 ‘8명의 갱단’

강동훈

오는 7월 7일 일본 훗카이도에서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가 열린다. G8 중 러시아를 제외한 7개 나라의 GDP는 전 세계 GDP의 70퍼센트 이상이며, 군사비 지출은 90퍼센트나 된다.

G8은 이 힘을 바탕으로 IMF, WTO 등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며, 전 세계에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퍼뜨리고 있다. 또,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략 등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해 왔다.

1999년 WTO 회의를 무산시킨 “시애틀 전투” 이후,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 G8 정상회의 때 다시 한번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기업 세계화에 반대하고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G8 정상회의는 대도시의 도심을 피해 시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적한 장소를 골라 무장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열 수밖에 없었다.

또, 지구온난화 대처, 아프리카 개발원조, 에이즈 예방대책 마련, 말라리아·결핵 퇴치 등을 공식 의제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떠들썩한 말잔치였을 뿐이다.

예를 들어, 2005년 G8에서는 2010년까지 아프리카 원조금을 연간 2백50억 달러(약 26조 원)씩 증액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에는 말라리아·결핵·에이즈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보건체계 개선을 위해 ‘향후 수년간’ 6백억 달러(약 62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목표도 정하지 않

았다.

또, 일본 총리 후쿠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채택하려 한다. 그런데 온실가스 방출을 80~90퍼센트 줄여야만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턱없이 부족한 이 목표조차도 쉽지 않다.

자선사업가

미국의 부시는 온실가스 삭감 목표 설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번 회의에 초청된 중국·인도·한국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을 끌어들여 온실가스 삭감 논의 전체를 망치려 한다.

이처럼 G8은 경건한 자선사업가인 양 위장하지만 실은 부자들을 위한 “8명의

갱단”인 것이다.

이번 G8에 초청 받은 이명박도 한미 FTA 비준, 한일·한EU FTA 체결 등을 추진해 자신의 ‘친재벌·서민 말살 정책’을 가속화할 것이고, 부시를 만나 전쟁·신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G8에 중국·인도 등을 추가해 G13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명박도 여기에 꼭 끼어 갱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

한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이어 일본에서도 G8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6월 29일에 열린 ‘G8 정상회담 분쇄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에 일본 노동자·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했고, 여기서 한국 촛불집회를 배우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한국의 전농과 민주노총에서도 30명이 훗카이도 국제연대 집회에 참가한다.

전 세계적 민중의 연대와 투쟁이야말로 전쟁·빈곤·질병·지구온난화 등을 끝장낼 수 있다.

냉각탑 폭파와 북미관계 개선의 전망

한규한

최근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게 핵신고 목록을 제출했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번 영변 냉각탑 폭파는 지난 5월 초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 야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실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 주기 위한” 상징으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금지법 대상 제외 조치에 착수했다. 물론, 이 조처는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손쉽게 되돌릴 수 있고, 미국은 이외에도 다른 제재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유엔 결의안 등의 제재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부시는 냉각탑 폭파 같은 상징적 행사를 통해 모종의 성과를 ‘과시’해야 할 만큼 처지가 군색하다. 또한, 이것은 이란 공격 여건을 갖추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6자회담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북핵 협상 과정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쪽은 대체로 미국이었고, 따라서 6자회담의 앞날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북핵 협상은 이제 본 게임에 들어 갈 준비를 마치기 시작했을 뿐이다. 당장 플루토늄 보유량 검증 문제, 고농축 우라늄 문제, 시리아-북한 핵 협력설이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한 후의 보상책이 무엇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북한은 경수로 제공을 원하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핵무기 폐기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못박은 바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 문제는 갈 길이 까마득하다. 사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의 산물이다. 노무현조차 “[북한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 폐기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근본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부시의 승리?

CNN은 이번 냉각탑 폭파를 두고 “부시의 승리”라고 했지만,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무엇보다 부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최근의 유화 국면은 미국의 힘의 한계를 반영한다.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는 클린턴 시절의 제네바 합의를 두고 “핵무기 폐기를 위해 북한을 매수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이제 부시는 냉각탑 폭파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식 대북 정책의 졸렬함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명박은 “부시의 푸들”(워싱턴포스트)처럼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 비용만 지불하거나, 북미 유화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 것이다.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해서 미국이 북한을 포용할지도 미지수다. 2003년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제임스 켈리는 “완전히 포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포기뿐 아니라] 인권, 테러,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사실, 미국은 번번이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 노력을 좌절시켜 왔다. 1, 2차 핵위기 모두 북한이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점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해 동아시아 패권 유지의 빌미로 삼는다는 제국주의적 전략과 연관돼 있다. 2001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 보고서는 이를 보여 준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미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하고], 미국이 포용 정책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이 무너지며,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약화시킨다.”

선제공격 독트린

최근 부시가 가끔 내뱉는 불가침 발언(서면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는)과는 모순이게도 선제공격 독트린은 한반도에 여전히 존재한다. 남한의 공격적 군사변환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남한 국방비는 북한 전체 GNP보다 많을 정도다. 게다가 최근 이명박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에 쓰일 수 있는 수천억 원대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를 구입하려 한다.

연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까? 답은 매우 회의적이다. 1994년 전쟁 위기를 부른 게 클린턴 민주당 정부 시절이다. 이후 제네바 합의를 무시하며 시간만 끈 것도 마찬가지다.

오바마는 부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에도 시큰둥하다. 그의 대선 공약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강한 국제 제재에 직면하도록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반전·반제국주의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벤트가 필요할 정도로 부시의 처지는 군색해졌다

국면에서 대북 강경 대응쇼를 하다 고립돼 궤퇴하게 된 김영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부시가 후퇴한 것은 무엇보다 미국이 중동 전선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늪에 빠졌고, 이 위기를 대이란 확전을 통해 탈출하려는 모험도 준비중인 미국은 현재 북한에 집중할 군사적 능력이 별로 없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실험을 마냥 방치하는 것도 곤란했을 것이다. 이리 되면 일본, 한국, 대만의 핵무장 욕망은 연쇄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는 중국과의 갈등

과 긴장을 높일 것이다. 주변국들은 이를 미국의 동북아시아 질서 관리 능력 감퇴로 여길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시의 유화책은 상황의 변화에 임기응변하는 대중 요법이다. 마치 2003년 이라크 침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리비아를 확실히 매수했던 식의 ‘일관성’은 없다.

오히려 미국은 핵무기 포기와 관계정상화를 맞바꾸자는 북한의 제안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무시해 왔고, 앞으로도

부시의 끝없는 이란 공격 위협

부시가 이란을 공격할 위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 탐사전문 기자 시모어 허쉬는 미국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비밀공작에 4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폭로했다.

지난주 마이클 물렌 합참의장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 군부와 회담을 가졌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합참의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단 두 차례 밖에 없었다. 지난 번 방문은 작년 12월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막 시리아의 핵 개발 의심 시설을 공격한 뒤였다.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1백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 공격 연습을 한 바 있다.

반전 활동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김용욱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은 경제 위기가 촛불 탓이라며 억지쓰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하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IMF는 한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이 추락할 거라고 예상했고 다른 경제 연구소들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내수는 숨이 막힌 지 오래됐고 물가 급등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수출 증가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촛불시위 탓이란 것은 황당하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유가 급등으로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자신이 “지금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또,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는 물가 인상의 근본 원인은 곡물을 포함한 식량·원재료 가격과 유가의 급등이다. 배럴당 1백40달러까지 치솟은 유가는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략, 투기 활동,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현상이며 식량가 폭등은 주로 투기 활동과 바이오연료 생산에 곡물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허풍선이 ‘747’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그 책임을 떠넘길 속죄양을 찾고 있을 뿐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이 물가 폭등을 더 부채질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소비를 희생시키며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명박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재벌이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생활이 나아질 거라 말한다.

그런데 재벌 투자가 자동으로 많은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지는 고사하고, 세계경제의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자 임금 삭감과 세금 감면으로 현금이 더 생기면 저들이 과연 일자리에 투자할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은행에 숨겨 두거나 각종 투기 활동으로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돈을 날릴 것이다.

더구나 1998~2005년 한국의 GDP 대비 투자율은 30퍼센트로, 이미 OECD 평균치보다 10퍼센트 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주가 폭락으로 1백10조 원이 사라졌다. 지금 강남 ‘버블 세븐’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데 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노동자·서민들이 투쟁으로 더 많은 임금 소득을 얻어 국내 소비가 강화되는 것이 세계 경제의 파괴적 영향력을 줄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이 물가 폭등에 책임이 있다

6월 소비자물가가 5.5퍼센트 상승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동자와 서민들이 피부노 느끼는 물가 인상률은 훨씬 높다.

실제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7퍼센트나 올랐고, 52개 품목의 이른바 ‘MB 물가’는 전·월세를 제외하면 9퍼센트나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물가 폭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인플레이 기대 심리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원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저평가했다. 그에 따라 석유와 각종 원자재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둘째, 이명박의 각종 ‘개혁’ 정책이 물가 인상을 부추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폭등이다. 한국은행은 초중고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증가가 ‘중국발 인플레이’보다 국내 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7.5퍼센트 증가해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셋째, 이명박은 기업들이 가격을 마구 올리는 데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전문가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물건 값을 올리는” 현상이 물가상승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들이 물가 상승 국면을 이용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수준을 공격해 이윤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석유, 밀가루, 설탕 등 몇몇 민간 업체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 더 심하다.

설상가상으로 하반기에는 공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뛰어들 예정이다. 최근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와 가스공급 요금을 이제 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24개 공기업들은 지난해 엄청난 순이익을 거뒀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오히려 공기업들의 돈 벌이를 더 강화시킬 ‘선진화’(사실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촛불의 승리가 서민 경제 위기 극복의 대안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경제 위기 때 정치 투쟁과 파업을 벌이면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협박 때문에 ‘촛불’과 파업 투쟁을 자제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실제로 1997년 IMF 공황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났다. IMF 이후 이른바 ‘고통분당’ 과정에서 노동소득(임금+자영업자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96년 81.6퍼센트에서 2004년 68.4퍼센트로 낮아졌고 자본소득은 18.1퍼센트에서 31.6퍼센트로 늘었다. 현재 한국은 OECD에서 멕시코와 함께 3대 양극화 국가 중 하나다.

지금도 저들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당’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대 백화점 명품판 매출은 5월에 39.1퍼센트나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소식이 보도된 같은 날 신문에선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1천만 원을 받

고 자기 장기를 판 아버지 얘기가 실렸다. 저들은 결코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촛불 같은 강력한 정치 투쟁은 불황기에 정부와 기업가들이 우리에게 양보하도록 강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1936년 프랑스에서 진보 정부가 당선하고 대규모 임금 인상, 유급휴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 등을 도입했다. 당시 전 세계적 대공황의 와중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병으로 생애 최초의 ‘바캉스’를 떠났다. 이것은 수백만 프랑스 노동자들의 강력한 공장점거 파업 때문이었고, 그것의 시작은 프랑스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

이었다.

1970년대 중반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전 국민 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도입됐다. 군사독재에 맞선 정치 투쟁이 승리한 덕분이었다.

촛불이 승리한다면 노동자·서민의 자기 몫을 찾기 위한 투쟁도 강화될 것이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유리한 분위기가 전개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IMF 위기 때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촛불의 승리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8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생필품 가격 인상율

달걀 20.6%

고등어 21.6%

양파 26.4%

돼지고기 27.2%

LPG 32.4%

밀가루 88.0%

우리는 울고 저들은 웃고

2008년 5월 3대 백화점 명품 매출 증가율

39.1%

2007년 백만장자 증가율(세계 4위)

18.9%

2007년 재벌 순이익 증가율

18.3%

물가 인상에 맞선 아시아인들의 투쟁

김용욱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오만한 신자유주의 정부에 맞서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의 정부는 유류 보조금을 철폐해 국가 재정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봐 왔고, 최근 식품가 인상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작년 말부터 물가 폭등과 유류가 인상에 항의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크게 분노한 것은 말레이시아가 아시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나스는 2007년 〈포춘〉이 선정한 가장 수익성 있는 세계 10대 석유 회사 중 하나일 정도로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40년간 말레이시아를 통치해 온 집권 정당 연합인 국민전선(BN)의 주축 정당 통합말레이국민기구(UMNO)의 뿌리 깊은 민족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인도계 소수민족 투쟁도 일어나면서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런 투쟁으로 말레이시아 집권 연합은 40년 만에 최초로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사회주의자 2명이 당선됐다.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7월 12일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유가 인상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대규모 투쟁이 계속된다면 UMNO 40년 연속 통치 체제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 정부 내 소수 인사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민중 투쟁은 점점 중요한 국면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가 5월에 유가를 30퍼센트나 올려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시작됐다. 경찰은 평화 시위에 무지마치한 폭력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 한 명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에이즈로 자연사한 거라고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온갖 폭력과 고문을 자행해 온 경찰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98년에도 유가 인상이 발

단이 돼 민중항쟁이 발생했고, 독재자 수하르토를 쫓아 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대중적 압력에 밀려 정부의 유가 인상이 합당한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급진 활동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석유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천연자원들을 국유화해 민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정부도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10퍼센트 이상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집권당인 국민회의가 포함된 통일진보연합(UPA) 내 좌파 정당에서 항의를 촉발했다.

좌파 정당들은 유류세를 낮추라고 주장하고 있고, 석유 기업들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유가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집단 중 하나인 택시 운전사와 화물 운전자들의 연합은 7월 2일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좌파 정당들 중 핵심인 인도공산당-맑시스트파는 자신이 집권한 서부 벵골 지방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펴고 그동안 국민회의의 많은 잘못된 정책을 지지해 왔기에 이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 투쟁을 지도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최근 좌파 정당들의 유가 인상 반대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을 보면 인도 경제 기적의 혜택을 입지 못한 평범한 대중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가의 고통을 떠넘기는 지배자들

크리스 하먼

유가 급등이 전 세계 대중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유가 급등은 모든 에너지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난방비와 교통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유가 급등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구와 식량 운송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에너지 집약적 생산품인 질소 비료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식량가 폭등에도 간접적이지만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 불황의 진행 속도를 늦추려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노력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들이 선호하는 불황 대처법은 엄청난 양의 자금을 금융 부문에 지원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런 조치가 물가 인상을 불러올까 두려워한다.

1980~90년대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상대적 저성장을 겪었고 석유에 대한 수요도 적었다. 당시 석유 실질 가격은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의 정점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대형 석유 기업들은 여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석유 자원을 찾기 위한 투자를 줄였고 석유 정제 시설에는 더 적은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경제는 대규모 소비 대출과 정부 군비 지출 증가 덕분에 급속히 성장했다. 동시에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이 세계 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석유 수요가 갑작스레 늘었고 미국 제국주의가 이라크를 침략하는 와중에도 그런 추세가 지속됐다. 1990년대 말 배럴당 10달러에 불과했던 석유가가 곧 30달러로 올랐고 이윽고 70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가격은 1백30달러에 이른다. 일부 전문가들은 1백달러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석유 기업들의 이윤도 치솟았고 가스와 석탄 기업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렸다. 금융 투기꾼들은 이런 1차 상품들의 가격을 더 올리는 데 돈을 쏟아 부었다. 한편, 전 세계 노동자와 빈곤 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설교를 듣고 있다.

석유에 대한 탐닉

인류가 석유를 계속 사용하면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 명백한 예도 이윤 논리 때문에 사방과 공업 발전에 뛰어든 나머지 나라들은 석유 소비를 계속 늘려 왔고 특히 교통에서 그랬다.

공공 교통 대신 자가용 사용이, 열차 대신 트럭 사용이 권장됐다.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와중에 어마어마한 석유를 소비하는 자동차 특권의 상징으로 대접받았다. 유럽, 북미와 일본의 기성 자본가들은 석유에 대한 파괴적 탐닉을 포기하지 못했고, 중국과 인도의 자본가들은 기성 자본가들을 모방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석유 매장량이 바닥 나기 시작한 게 아난가 우려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석유 정점’에 이미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아직 40년 동안 더 쓸 수 있다고 반박한다.

석유 자원을 통제하는 자들—사우디아라비아 왕가, 대형 석유 기업, 러시아 국가 등—이 최대한의 이윤을 얻으려고 정확한 매장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답을 모른다.

물론, 전 세계 자본주의의 석유 탐닉은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석유 자원의 사용으로 온실 가스가 발생하면서 재앙적인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석유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 육수수 중 30퍼센트와 유럽연합 식품생산기름 중 절반이 석유 대체 연료인 이른바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석유에 대한 탐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가지 밖에 모른다. 에너지 가격을 올려 보통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이윤 추구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석유에 의존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저들은 이제 그것이 초래한 잘못을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말한다. 쉘,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텍사코, 셉트리카 등의 대형 석유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올리도록 놔두면서 말이다.

크리스 하먼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이고,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쉽게 읽는 마르크스주의》 등 많은 책을 썼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파업

현장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정중남

광우병 쇠고기 수입·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물가폭등 대책, 대운하 폐기 등을 내건 민주노총 파업을 선언하며 이석행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을 직접 강제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부와 우파 언론이 광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을 하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연행했고, 검찰도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탄압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기 삶의 조건이 결정되는 정치적 문제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도 “노동자들은 단체교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 조건 등 각종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결코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거의 죽기 살기로 반격에 나선 이명박을 저지하기엔 2시간 파업으로는 부족하다.

돌이켜 보면, 만약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으로 형성됐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투쟁을 확대했다면 이명박이 지금 같은 반격을 시도



6월 28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노동자들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말아야 한다.

절호의 기회

그 점에서 금속노조 지도부가 7월 2일 두 시간 파업 이후에 순환파업으로 수위를 낮춘 후, 전면파업은 멀찌감치 뒤에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7월 4일 열릴 금속노조 정의대책위원회는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전면파업 계획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투표율 90.1퍼센트에 75.5퍼센트가 찬성한 금속노조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투쟁 회피는 납득할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

도 서울지하철노조처럼 벌써 몇 개월째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중인 노조부터 과감하게 파업을 시작해야 한다.

악랄한 탄압에도 또다시 촛불이 확산되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가들의 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열린 민주노총 투본 대표자 회의와 금속노조 정의대책위원회, 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 등에서도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고 선동한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더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파업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 대의기구의 토론에 개입하고, 현장에서 파업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식/보고

7월 7일(월)까지 지역과 대학, 작업장의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letter@counterfire.or.kr

“현장은 준비돼 있다. 파업을 확대하자”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 이후 기아차 현장조직 활동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은 지금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파업 강도를 높이고 확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6월 28일 개최된 금속노조 중앙쟁대위는 7월 2일 2시간 파업과 서울 촛불집회 참가만을 결정했다. 이런 소극적 파업 결정에도 시민들의 금속노조 파업 지지는 대단하다.

금속 조합원들은 75퍼센트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는데, 금속노조 중앙 지도부와 자동차 4사 지부 지도부가 현장 조합원들의 준비 부족을 핑계로 파업 확대를 회피하는 것

은 옳지 않다. 자동차 4사 사측이 10차까지 진행된 산별중앙교섭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이명박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대 시점에 하루 총파업도 아닌 2시간 파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아쉽다.

압도적 찬성

기아차지부는 금속노조에서 결정된 7월 2일 2시간 파업과 촛불집회 참가 지침도 따르지 않으려 한다. 이에 기아차 화성지회에서는 현장 대의원 절대다수가 ‘국민들과 약속한 총파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배신적 행위다’, ‘현장

조합원들은 총파업 준비가 돼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격론 끝에 기아차 화성지회 지도부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금속노조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현장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동성명을 통해 ‘금속노조가 더 강도 높은 파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7월 4일 금속노조 중앙쟁대위에 대거 참관해 파업 확대를 호소할 계획이며 공장에서 야간 촛불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조합원을 믿고 헌신적으로 조직한다면 전면 재협상과 이명박 퇴진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김우용(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중앙위원)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 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흠어진 개인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맞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www.alltogether.or.kr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크로싱〉

탈북자의 고통과 비극을
생생히 고발하다

김영익

지난 6월 26일에 개봉한 영화 〈크로싱〉은 기아와 병마에 시달리다 못해 탈북을 선택한 북한의 한 가족이 겪는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 용수는 함경도에 사는 가난한 탄광 노동자다. 어느 날 용수의 아내는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쓰러진다. 용수는 치료약을 구하기는커녕 비어 있는 쌀독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넌다. 그러다가 “인터뷰만 하면 큰돈을 준다”는 브로커의 거짓말에 속아 의도치 않게 남한으로 오게 된다.

그 와중에 아내는 변변한 치료도 못받고 숨을 거둔다. 혼자 남은 아들 준이는 길바닥에 떨어진 국수를 주워 먹는 꽃제비들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다 붙잡혀, 끔찍한 수용소에 갇힌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다, 결국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고비 사막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이처럼, 〈크로싱〉은 기아와 질병, 국경 통제와 정치 억압 등 북한 민중의 고난을 매우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탈북자 수백 명을 인터뷰해 만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탈북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을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영화가 보여 주는 북한 민중의 실상에서 우리는 북한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대중이 극소수의 관료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급사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크로싱〉을 반공 홍보 영화쯤으



로 포장하고 싶은 듯하다. 박근혜나 미국 국회의원들이 시사회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면, 이를 대서특필하는 식이다. 아예 이 영화의 개봉을 ‘촛불을 꺼뜨리는 계기로 삼자’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크로싱〉의 김태균 감독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영화는 반공영화 아니라고 적극 해명해야 했다.

꽃제비

북한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척 하지만, 사실 그동안 ‘대북 퍼주기’를 비난하며 북한의 식량난을 외면한 자들이 바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이었다. 지금도 〈조선일보〉는 옥수수 5만 톤의 생색내기 지원을 하려는 이명박에게 북한 식량 지원은 그리 급한 일이 아니라고 충고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김정일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봐야 한다”고 설레발을 친 극우익 조잡제는 “우리 국군이 평양의 주석궁에 탱크를

진주시켜야 한다”는 극악한 주장을 펼쳐 온 전쟁광이다.

그리고 〈크로싱〉의 비극은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모습만은 아니다. 남한도 빈부격차의 확대에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떨어진 서민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2004년 12월 대구에서 한 아이가 장롱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은 남한에도 여전히 빈곤으로 굶어 죽는 아이가 있음을 비극적으로 보여줬다.

북한에 민중을 억압하는 보위부가 있다면, 남한에는 지금 이 순간 촛불을 끄려고 날뛰고 있는 공안검찰과 폭력 경찰이 있다. 그리고 남한에 사는 이주노동자에게 북한과 중국 당국의 탈북자 인간 사냥과 감금·강제 송환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크로싱〉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메시지는 역겨운 반공주의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민중이 휴전선을 가로질러 서로 보듬어 안아 줘야 한다는 연대의 정신이어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들과의 대화

다음은 집회 참가자들과 나중
다에 연락해 나눈 대화 중 일
부다.

· **경남 창원대 학생** : 정부의 추가협상은 완전히 쇼다. 수익만 쫓아다니는 기업들이 어떻게 자율규제를 하겠나? 사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계기일 뿐이고 이명박 정부 초창기부터 추진한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번 촛불시위로 하나로 모아진 것일 뿐이다.

· **마포구 남성 직장인** : 87년 6월 항쟁 때 1백만 명이 넘게 모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참가 인원이 더욱 많아지고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을 다양한 요구를 제시해야 이길 수 있다.

· **마포구 주부** : 단지 먹을거리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통해 서민들을 죽이려 한다. 야당에 의존할 수도 없고 못 미덥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고 농민·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 **의정부 여대생** : 나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 교육, 민영화, 대우하, 공영방송 등등. 그래서 며칠 후에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책 모두가 문제라서 나오게 됐다.

· **중랑구 회사원** : 추가협상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최소한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은 돼야 하고, SRM 제거 문제가 핵심이다. 이 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양보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황당하다.

정리 전주현

전화를 통해 ‘다함께’에 대한 지
지·격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함께의 한 ‘할머니 회원’은 “다함께가 운동 안에서 급진파이고, 앞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다친 사람들은 없는지 걱정돼 전화했다”고 하며 말을 이었다.

“주변 할머니들은 ‘젊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데, 이제 노인들도 나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냄비처럼 소리나는 것도 듣고 나가고, 오늘 저녁부터는 할머니들이 시청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한 주부는 이렇게 말했다.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나 같은 주부까지도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이명박이 추진하고 있다. 오늘(30일) 아침까지도 거리에 있었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 이명박이 쇠고기 수입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못 하게 될까

봐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명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죽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새로 온 사장이 MB맨인데, 지난해 3천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아먹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건강보험공단 사장에 앉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명박을 아예 끌어내려야 한다. 촛불을 절대 꺼서는 안 된다. 〈맛불〉은 집회에서 계속 사 보고 있다.”

이 주부는 며칠 후 또 전화를 걸어 왔다. “어떻게 될 것 같냐. 택시 기사를 만나 보면 90퍼센트 이상이 촛불시위에 지지를 보내더라. 국민대체회의 압수수색도 하고, 곤봉까지 사용하고, 정부가 갈 데까지 간 것 같다. 국민이 적어도 1백만 이상 모이면 이명박이 아무것도 못 할 거다. 수고 많으시다. 계속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정리 김인숙





이명박이 한마디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학원강사인 제 친구는 지난해에 중학 생 딸을 싱가포르로 조기유학 보냈습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 어정쩡 싱가포르로 가게 된 딸이 도대체 미국에 간 부잣집 아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냐며 못한 아버 때문에 딸이 뒤처진다고 자책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다른 친구는 월급 2백만 원 중 1백20만 원을 두 아이 사교육에 씁니다. 한 아이 당 60만 원을 써서는 고작해야 싸구려 학원들이나 다닐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성적 좋은 큰 아이에게 ‘올

인’ 할까 고민도 하지만, 혹시 둘째가 커서 자기처럼 비정규직이 되면 어쩌나 해서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제 아이 유치원에서, 경제력 있는 부모들이 수업료를 올려서라도 초등학교 과정을 대폭 선행학습 시키자고 주장하자 저같이 여유 없는 부모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편이 갈려 반목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예비규환인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 이명박이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집중 노력하라고 지시했다는군요. 이 뉴스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명박이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 한다고 하자 그 물품들의 가격이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그가 국민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하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명박의 모든 말은 거꾸로 해석해야 한다는 걸 촛불집회에 참가하며 깨달았습니다.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해서 사교육비를 폭등시킬지 두렵습니다.

우원석

여러분의 편지를 환영합니다

촛불집회의 생생한 경험이나 이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맞불>에 보내 주세요.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나 경험한 것, 같이 참가한 지인들과 나눈 이야기 등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맞불>은 정부의 촛불집회 비난, 조종동의 왜곡 등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언론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맞불>에 직접 실어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letter@counterfire.or.kr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맞불> 웹사이트(<http://www.counterfire.or.kr>)의 ‘독자편지 쓰기’ 탭을 클릭하세요.

시국미사를 보고 느낀 것

경찰이 6월 30일 낮부터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한 순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시청에서 미사를 거행한 뒤 행진을 한 것은 경찰과 이명박에게 한 방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진석 대주교(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이주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추방을 경찰에 요청한 이명박 지지자)가 일으킨 가톨릭의 보수화를 뚫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가톨릭 급진주의의 맥을 잇는 것 같아 기쁩니다.

가톨릭 급진주의가 제 청소년기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995년 [탄압을 피해 명동성당에 온 한국통신 노조 지도부를 잡으려 경찰 병력을 투입했을 당시] 젊은 보좌신부들이 김영삼 정부를 성토했으며 민주화의 보루인 명동성당을 사수하자고 했을 때, IMF와 신자유주의를 고발하며 ‘주빌리2000’[제3세계 외채 탕감 운동]에 서명하라고 호소했을 때 청소년이었던 저는 급격히 급진화했습니다. 대학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학생운동이 돼 있었으니까요.

물론 유물론자로 살아가는 지금의 저에게 종교의 힘이 아니라 민중의 힘이 더 중요하지만, 때론 민중의 힘을 모으기 위해 종교의 거룩한 정신을 발판으로 삼을 필요도 있겠죠. 종교인들도 이 운동에 가담할 만큼 정당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촛불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상원

김영삼이야말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전 대통령 김영삼은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데, ‘그만두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완전히 [시위대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영삼은 “나 때만 해도 규율이 섰”다며 자랑했다.

그러나 2000년 김영삼 고려대 방문 항의 시위에 참가한 나로서는 김영삼의 잘난 척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김영삼이야말로 초라한 과거를 잊고 망발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1995년에 한총련이 이끈 강력한 전(두환)·노(태우)구속투쟁 때문에 두 살인마가

구속됐다. 두 살인마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압력에 떠밀려 이것을 두고 봐야만 했다. 1996~97년에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가 강력한 노동자 파업으로 정치적 식물인간이 됐다. 그는 임기말에 한보 비리와 IMF구제금융으로 고통과 배신감만 안겨줬다.

출입금지

이런 김영삼이 2000년 11월 13일의 금요일에 고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

대전에서 사기치고 간 정운천

6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이 대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방문했다.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반대하는대전시민대책회의’(이하 대전 대책회의)는 정운천의 방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시민 70여 명을 저지하려고 사복경찰을 포함해 3백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하는 우스꽝스런 ‘쇼’를 벌였다.

경찰병력 3백여 명이 에워싼 가운데 열린 시민들과 즉석 ‘토론회’는 대전 시민들의 분노를 부추길 뿐이었다. 시민들 앞

에 선 정운천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고, “어찌됐든” 여러분도 국민이고 …”, “제가 그래도 장관인데 …” 등의 표현으로 빈축을 샀다.

제가 그래도 장관인데

나는 “국민들의 요구가 언제부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였는가, 위험부위를 완벽하게 제거한 살코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고 질문했는데 “위험부위 4가지를 수입 금지했고, 검역권도 강화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인이 즐겨먹

는 곱창·막창 등의 내장부위, 사골뼈와 꼬리뼈는 그대로 수입된다.

대전 대책회의의 관계자는 수입 위생 조건 1조 1항과 17조의 모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운천은 “그것은 외교통상부나 국제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대답을 피했다.

정운천은 “우리 나라 된장·간장·고추장이 1백 퍼센트 안전한가 … 식품에 ‘만약’이란 문제를 제기하면 끝도 없다. 신뢰하며 먹는 방법뿐”이라는 등 기만적인 답변만 늘어났다.

황동혁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건설 노동자 파업 승리를 앞당길 전술은 무엇일까

<맞불> 93호 독자편지 ‘<맞불> 92호 건설 노동자 파업 기사를 읽고’에서 전 재희 동지가 말했듯이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나 또한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동지가 지적한 “산개해 힘을 분산”시킨다는 표현(<맞불> 92호)에는 내 의도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건설기계노조의 ‘산개’는 현장 점거투쟁을 위해 지역 현장으로 간 것이지 탄압을 피하려고 조합원들을 뿔뿔이 산개시킨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당시 건설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거점을 형성해 파업 투쟁을 이

어갔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건설 노동자들이 16일 전면 파업과 함께 서울 대학로에 모였을 때 한 자리에 모여 어깨 걸고 싸우는 2만 5천 명의 건설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자신감을 줬다. 이명박 정부의 양보(말 뿐일지라도)도 건설 노동자들이 서울에 집결해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치적 타격

당시 이명박 정부는 40일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촛불과 화물연대 파업으

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승리의 열쇠였다. 그러려면 서울에 거점을 두고 이명박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지난 6월 22일 건설노조 산하 건설기계분과를 비롯해 건설사무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등 8천 명이 대학로에서 ‘건설 노동자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건설노조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 것은 고무적이었다.

최미선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내가 겪은 경찰의 불법 연행

[이명박이 결국 고시를 강행한] 6월 25일에 경복궁 집회에 좀 늦게 참가했습니다. 초등학생과 국회의원을 연행해 태운 전경버스를 사람들이 막으려 하고 있었지만 곧 버스가 떠났습니다. 그 때 갑자기 뒤에서 “끊어!” 하는 소리와 함께 전경이 달려와 기자와 시민들을 둘러쌌습니다. 기자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길을 내주었지만, 황당하게도 그 길은 전경버스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양천경찰서 조사관 경장 박성열 씨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빈정댔고 옆에 있던 지능1팀 장 고석길 씨는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이 새끼가 말하는 게 싸가지 없어”라는 욕설도 했습니다.

유치장 화장실은 반(半)개방형이었고 식사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경찰들도 이런 거 먹냐”고 항의하자 자기들도 그렇게 먹는다고 구차하게 변명했습니다. 지인들이 세 번, 네 번씩 면회 온 것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넣어 준 음식도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묵비를 하지 않은 다른 분들은 32시간 만에 보내 줬지만 저는 46시간 동안 남겨 뒀습니다.

그러나 같이 연행됐던 분들은 사기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연락하며 더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안치영

번민하는 전투경찰

나는 전경들이 회의를 느끼며 갈등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지난 28일 연행된 동지를 면회하러 구로경찰서에 갔다. 그 때 수백 명의 전경들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쥐새끼 한 마리만 잡으면 모두가 편한데 고생들이 많다”고 큰소리로 말하자 여러 전경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청을 지나던 전경버스를 향해 팻말을 들고 손을 흔들자 버스 안에 있던 전경들이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장면, 새벽 시위 진압에 나서 시민들을 밀어내던 전경들에게 “이쪽이 아니라 청와대 쪽에 쥐를 몰아내려 가세요” 하고 소리칠 때 웃음을 참지 못하던 전경의 모습도 눈에 선하다.

그런데 28~29일 새벽에 투입된 전경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이들은 눈에 독기를 품고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폭력적 시위 진압으로 악명이 높은 1001~1003 부대 소속이었다. 이들에게는 시위 진압 전 엄청난 육체적 고통(일명 ‘얼차려’)과 정신 교육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갈등하는 전경을 쫓지만 정치적인 구호로 설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일부 전경에게는 단호하게 맞아야 한다.

김우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중앙위원)



경찰의 거짓말과 뻔뻔함

나는 지인인 안치영 씨가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그를 면회하러 경찰서에 갔다. 안치영 씨가 부당한 연행에 반대해 묵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경찰에게 유치인의 이름을 알려 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경찰은 면회할 수 없다고 했다.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왜 지켜 주지 않는냐고 항의하자 경찰들은 오히려 오만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욕설을 했다.

석방되는 날 경찰은 묵비를 유지한 안치영 씨를 가장 늦게 풀어 줬다. 그런

데도 경찰은 연행자들이 모두 석방됐고 거짓말했다. 나중에 그가 석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담당 형사에게 그가 언제 석방될지 물어보았다. 담당 형사는 강제 지문 날인을 해 놓고서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구속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글귀는 냉소만 자아냈다. 폭력과 위협, 거짓말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경찰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항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원웅

석방되자마자 다시 시청으로 달려갔다

지난 27일 시청 앞 광장은 말 그대로 이수라장이었다. ‘해방구’로서 시청 광장을 정부에 고용된 용역깡패와 폭력경찰이 무참히 짓밟은 것이었다.

이날 10명이 연행됐다.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 나는 경찰이 주장하는 ‘집시법’,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 중 그 어느 것 하나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수십여 분 동안 폭행당했고 46시간 동안 강제 구금됐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덮어씌우는 것에 맞서 싸워야 했다.

난 죄인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심지어 연행돼 있는 동안에도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 운동의 정당성을 더욱 높이는 길이었다. 내가 저들의 꿈수에 말려 묵비를 풀고 단 한 가지의 사실(실은 거짓)이라도 ‘자백’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다. 혼자서 치려야 할 매우 가혹한 싸움이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그리고 29일 오후 1시에 석방되자마자 다시 시청 앞 광장으로 달려갔다.

박용석

<조선일보>와 경찰의 적반하장

6월 26일 일부 촛불시위대의 조선일보사 앞 항의 시위를 두고 보수 언론은 “과격 폭도들”(《뉴데일리》)이 경찰관을 “인민재판”(《조선일보》)했다며 계거품을 물었다.

문제의 사건은, 당일 항의시위 도중 조선일보사 기물을 파손한 ‘현행범’을 경찰이 연행하려다 시위대가 이를 제지하고 한동안 경찰을 ‘취조’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1시간가량 용의자를 미행한 뒤 한적한 곳에서 체포해 승합차에 태웠는데, 그것은 시위대들에게 ‘납치’로 여겨질 만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밀착 취재한 <프레시안> 보도를 보면, 험악한 감정을 침착하게 다스리는 시위대의 노력이 있었다. 방패로 두개골에 금가게 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잘라 버린 경찰 보다는 지극히 인도적이었다.

진정한 문제는 경찰의 이중적 태도다. 같은 현행범이지만 어떤 자들은 경찰의 비호까지 받는다. 6월 6일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폭행했지만, 범행 현장의 경찰들은 스크림까지 짜며 현행범들을 보호했다. 주시와 미행을 하기는커녕, 변호사들이 용의자를 데려다 주며 “제발 일단 연행해 달라”고 했으나 받지도 않았다. 23일에는 KBS 본관 부근에서 우익 단체의 무기 운반 차량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조사는커녕 압수도 하지 않았다.

김낙준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변혁 조직 건설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맞말> 93호에 실린 ‘정통 사회주의 정당이 가능할까요?’라는 글에서 신철 씨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정통 사회주의 정당이 대중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비록 두 정당이 모두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가 의회나 행정부 등에 진출해 그 속에서 점진적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질레 아옌데 민중연합 정부의 경험이 비극적으로 보여 줬듯이, 체제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대자본과 군장성, 고위 국가 관료 등

의 ‘반혁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럴 때 개혁을 성취하고 개혁의 성과를 유지·확대하려면 점진적 개혁만 추구하는 데 멈출 것이 아니라, ‘반혁명’의 사회적 토대를 제거하려 해야 합니다. 마치 5대 정점은 고사하고 재협상 요구하나라도 성취하려면, 이명박을 퇴진시킬 정도로 투쟁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근본적 사회변혁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정당을 만들어 대중 속에 파고드는 게”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혁가들이 진보 정당들과 협력하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 대중적 진보 정

당의 탄생은 역사적 진보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더는 자본가 계급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비판적 협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 정당의 지도자들이 체제 내의 개혁을 추구하느라 자본가 계급 정치세력과 불필요한 타협에 연연함으로써 오히려 개혁을 성취하지 못할 때 분명히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변혁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실천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주요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운동을 지지하는 수십만 대중 속에서 대중적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변혁 정치조직 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운동과 대화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정병호

폭력적 촛불 짓밟기를 멈춰라

최미진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명박의 몸부림이 공안 정국으로 돌아간 듯한 극악한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1천여 명 연행, 최루액 사용 협박,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타와 토끼몰이 진압, 집회 원천봉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및 체포영장 발부 ...

이것이 지난 두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절절한 심정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이명박의 피비린내 나는 대답이다. 이명박은 핏수가 먹이지 않자, 탄압으로 촛불을 짓밟아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촛불시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온 대책회의부터 무력화하기 위해 대책회의의 주요 활동가들을 탄압의 핵심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공안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생명력은 유지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공안탄압으로 질식될 위험에 처했던 촛불시위의 숨통을 틔워 줬다. 사제단이 시국미사를 열고 앞장서 행진을 이끌자, 시민 10만 명이 동참해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우고 다 시금 거리에 나섰다.

지금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반감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명박의 악랄한 촛불 탄압은 왜 그를 그대로 뒀서는 안 되는지 더 분명하게 해 줬을 뿐이다.

대책회의 실무진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경찰은 안진걸 대책회의 조직팀장,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황순원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을 구속했다.

박원석 · 한용진 대책회의 상황실장, 김광일 행진팀장, ‘안티 이명박 카페’ 백은종 씨, ‘미친소닷넷’ 백성균 씨, 대책회의 자원 활동가 김동규 · 정보선 씨 등 7명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촛불의 입이자 손발이었다. 이들은 촛불시위를 위해 밤낮 없이 온갖 실무를 도맡아 헌신해 왔다. 정부는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촛불을 끄려 한다.

그러나 국민 80퍼센트의 요구를 대변해 활동해 온 이들은 죄가 없다. 구속된 3인을 석방하고 수배 상태에 있는 7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당장 철회하라.

낡은 색깔 공세와 진보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와 조중동은 진보연대 등 대책회의에 적극 참가해 온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이들을 마녀사냥하고 촛불시위 참가자들과 단체들을 분리시키려는 비열한 시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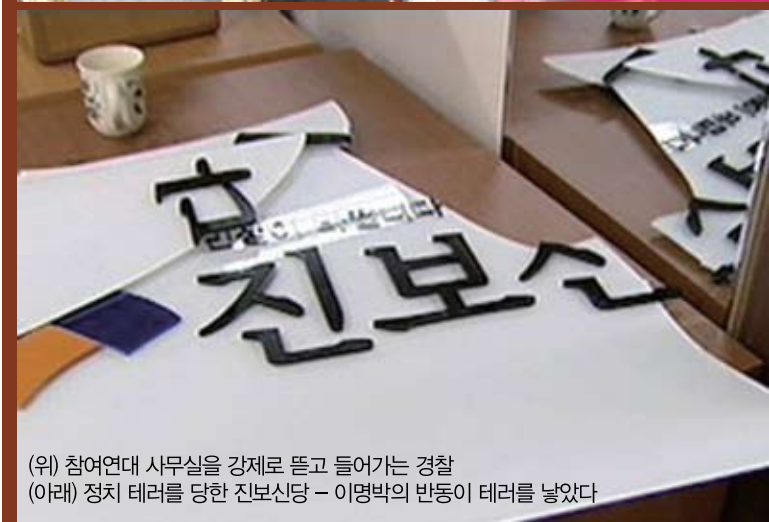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공안검사 출신답게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실체는 골수 반미단체이며 거리 시위는 과거 반미 시위를 이끈 ‘전문 시위꾼’들이 주도하고 있다”, “진보연대는 골수 반미단체”라며 해묵은 색깔 공세를 펼쳤다. 며칠 후 진보연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그러나 경찰의 광폭한 탄압 속에서도 용감하게 시국 미사를 진행한 사제들과, 이들을 지지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10만 명이 ‘전문 반미 시위꾼’인가?

진보연대에 대한 색깔론은 촛불을 끄기 위한 음험한 공작일 뿐이다. 진보연대 성명서가 밝혔듯이 “광우병 위험을 해결하라는 국민을 방패로 찍고 군홧발로 밟아 촛불을 끄려면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진보연대에 색깔을 입히고 진보연대를 배후로 조작하는 것”이었다.

촛불 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색깔론에 맞서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는 단체들을 방어해야 한다.



(위) 참여연대 사무실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는 경찰
(아래) 정치 테러를 당한 진보연대 - 이명박의 반동이 테러를 낳았다



이들이 '전문 반미 시위꾼'인가?

저 · 항 · 운 · 동 · 의 · 축 · 제

맞시름2008

맞시름 2008은 40여 개의 토론과 진보적 영화, 음악, 사진전 등이 어우러지는 저항운동의 축제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맞시름 2008에서는 촛불 운동의 주도적 참여자들, 국내외 반전 · 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연설할 것입니다. 맞시름 2008에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운동의 방향과 더 나은 사회의 대안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주요 연사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농민운동가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석균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지문위원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지문위원 김지운 고려대 학생/토론회에서 한승수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일명 '고대녀' 강양구 <프레시안> 과학 · 환경 담당 기자/황우석 사기극을 들춰낸 언론인 김수행 맑스주의 경제학자/사회과학아카데미 대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이강택 'KBS 스페셜' PD/광우병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언론인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슬람>의 뜻과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초대의 연사

조너선 닐 아동문학가/대안세계화운동가 이언 버철 영국의 맑스주의 역사가 버지니아 로디노 미국 반전 단체 '평화정의연합' 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 ★ 2008년 촛불 운동과 새로운 저항 시대의 개막
- ★ 광우병 — 신자유주의가 낳은 공포 _박상표
- ★ 이명박 정부와 미친 교육 _이영주
- ★ 이명박 운하 — 무엇을 위한 삼철인가?
- ★ 영화 <식코>의 현실이 한국에 온다 — 의료를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까닭
- ★ 이명박, 공공서비스 민영화, 신자유주의
- ★ 한미FTA, 왜 반대해야 하는가? _강기갑
- ★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_우석균
- ★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 ★ 인터넷 민주주의 — 신화와 실제
- ★ 민족 담론의 허와 실 _최일봉
- ★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항쟁의 교훈
- ★ 자발성과 지도 그리고 사회변혁 정치 단체

- ★ 오늘의 경제 위기, 왜 일어났고 해법은 무엇인가? _정성진
- ★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나? —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_김수행
- ★ 고유가의 정치경제학 _이강택
- ★ 대선 앞둔 미국 — 미국은 변화하는가? _조너선 닐
- ★ 오바마와 미국 인종 문제 _버지니아 로디노
- ★ 이라크 전쟁 5년, 점령을 중단하라
- ★ 이슬람 혐오, 그 거짓을 파헤친다 _이희수
- ★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신화
- ★ 맑스주의와 종교 _최일봉
- ★ 1968년 반란 참가자가 말하는 1968년 반란 _이언 버철
- ★ 지구 온난화를 멈춰라, 세계를 바꾸자 _조너선 닐
- ★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일시_ 8월 14일(목) ~ 17일(일) | 장소_ 고려대학교

주최_ 다함께
참가문의_ 02-2271-2395, atgmail@nate.com, http://www.marxism.or.kr